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이 지난 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일 의장은 의원들 간의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을 통하여 정읍시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적극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박일 의장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담긴 상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강본 토페스 대표이사,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토페스 이강본 대표가 3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토페스는 국내 최초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과 영상식 차량검지기 등 개발에 성공한 회사로 교통단속 및 정보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2024년에 김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2024년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소상공인 1인점포 안심벨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 및 '김제형 마을자치 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제=곽노태기자

이명철 재경산동향우회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이명철 재경산동향우회장이 지난 2일, 3년 연속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하며 누적기부액 350만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향우회장은 서울 강북구에서 플리츠(주름 섬유)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고향 산동면에 의류, 생필품과 같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 향우회장은 "한 개인의 기부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건 엄청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향우들이 주축이 되어 남원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거동불편 주민에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거동 불편 주민 4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들은 모두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자녀나 가족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

한 어르신은 "평소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동행을 부탁하는 것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다며,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런 혜택을 주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100년 은행"

전북은행, 전주시가족센터 'JB희망의 공부방 제200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3일 전주시가족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시가족센터로 통합운영 되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학습, 교류, 소통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해 200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전주시가족센터에서는 'JB희망의 공부방'을 향후 한국정착을 위한 학습 공간, 가족참여 독서활동, 부모자녀 프로그램, 스터디 모임 등 아동과 가족 모두의 가능성을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의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열악한 생활환경 등을 개선해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해 주는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2012년 5월부터 이어 왔으며, 지난 14년간 9억여원을 투입해 약 5천명의 아동들에게 공부방을 선물했다.

지난 2024년부터는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전담부서에서 직접 시설방문 및 의견청취, 고충해결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앞으로도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오픈식에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 윤명숙 단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전주시가족센터 이혜경 센터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은행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응원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JB희망의 공부방'을 200호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산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언제나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국민연금공단, 인구사랑 운동 동참… 민관 협력에 시동

정읍시가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정화)가 지난 2일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공공기관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동참은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정읍시가 중점 추진 중인 인구 정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첫 사례 중 하나다.

시는 △정읍愛 주소갖기(주민 전입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체류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지사는 지역 특화 사업 발굴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전입 유도와 인구활력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지역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시민과 기관,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정읍을 살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지사장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정읍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동참을 계기로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생활권 중심의 체류·정주 인구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내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5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나눔 연수'를 장수영재교육원 에듀테크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창의적인 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강사로는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 강대호 교사가 나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강 교사는 다양한 디지털 드로잉 도구를 활용한 수업 자료 제작 및 학생 참여 유도 사례를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활용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교총-교사크리에이터협회 전북지회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2일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전북지회(회장 강경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의 전문성 확장'과 '미래형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교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교사 콘텐츠 공동 제작 △교육현장 사례 발굴 및 홍보 △현장 기반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오문하 유초등위원장, 이도영 청년부위원장과, 강경욱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전북지회장, 장성진 팀장, 이일구 팀장 등이 참석했다.

오준영 회장은 "영상 콘텐츠는 더 이상 부가 활동이 아니라, 교사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는 하나의 교육행위"라며 "교사들이 가진 교육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전북교총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경욱 지회장은 "이제는 교사 개개인이 교육 철학과 실천 사례를 직접 발신하는 시대"라며 "이번 협약이 '콘텐츠로 소통하는 교사', '영향력을 가진 교사'라는 새로운 교사상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윤철 전주시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전주시의회는 3일 김윤철 의원(복지환경위원장, 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 의정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9.10.11대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역임하고 12대 의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4선 의원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은 물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봉남, 황산, 금산, 신풍)이 지난 2일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 9대 전반기 김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평의원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오랜 지역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만 고창군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박성만 자치행정위원장이 지난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성만 의원이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 구천동농협, 찾아가는 염색봉사 활동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3일 설천 내·외북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염색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고령의 조합원과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실천의 일환으로, 전북농협, 도농상생본부, 무주군지부, 구천동농협 임직원, 구천동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염색뿐 아니라 두피마사지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염색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농사일로 늘 바쁘고 몸이 불편해 미용실을 가지 못했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